

# 벼랑 끝 자영업자 “더 못 버텨요”

## 광주 야간 차량시위 “영업 제한 풀어달라”

###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 생존권 보장 요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지역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1년 8개월간 계속된 코로나19 사태에 인건비와 밀린 월세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탄 직전까지 내몰렸으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수칙이 또다시 연장됐기 때문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절저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개인 방역 중심으로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9일 광주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며 지난 8일 밤 11시부터 서구 시청 인근 도로에서 약 1.4km 구간을 차량으로 행진했다.

차량 행진에는 49대의 차량을 동원하기로 계획했지만 뜻을 함께하는 광주 전역과 일부 전남 지역 자영업자들이 찾아오면서 예상보다 많은 차량이 행진에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의 차량에 ‘거리두기 보이콧’이나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등의 현수막을 붙이고 시청 인근 도로를 달렸다.

허정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따랐지만, 그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피와 눈물밖에 없다”며 “앞으로 정부의 모든 방역수칙을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치사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도 마무리된

계”라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 제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위드(with) 코로나’ 정책도 영업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상가 공실률이 크게 치솟은 것

로 나타났다.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인해 고객들의 발길이 뜸 끊기면서 매출 지출되는 고정비용 부담에 문을 닫는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2분기 광주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4%로 전국 평균 공실률(13.1%)보다 0.3%p 높았다.

지역별로 금남로·충장로 공실률이 23.5%로 가장 높았고, 전남대(18.8%), 상무지구(15.1%), 월산동지구(1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의 큰 어려움인 임대료도 사실

상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m<sup>2</sup>당 2만900원으로, 전 분기(2만1,000원) 대비 100원 감소했다.

광산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박 모씨(32)는 “시민들이 감염 우려에 식당을 찾지 않다보니 인건비 벌기도 벅하다”며 “최근에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음달 3일까지 연장되면서 추석 대목을 기대하기는 글렀고, 주변 가게들 역시 방역 수칙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경영난 악화로 문을 닫는 가게들도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환준 기자



“추석 생필품 꾸러미 만들어요”

추석 연휴를 1주일여 앞둔 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원들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대상자 등에게 전달할 생필품 꾸러미를 만들고 있다. /김태규 기자

## 추석 연휴 5·18 민주묘지 출입 제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국립 5·18 민주묘지 현장 참배가 제한된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8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야외묘역은 물론 추모관과 유영봉안소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참배 대기실과 휴게실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기일이거나 삼우제, 49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받아 현장 참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일시적인 운영 중단에 따른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측은 온라인 참배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추모글 남기기, 온라인 차례상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사전 신청을 하면 국립묘지 직원들이 유가족에게 현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가족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계자는 9일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호 가족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참배에 다소 불편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후배 폭행’ 헬스트레이너 구속영장 기각

후배 헬스트레이너를 가두고 무차별 폭행한 선배 트레이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후배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심차례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청구된 헬스트레이너 A씨(3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증거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상태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달 1일 광주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후배 트레이너 B씨를 폭행, 약 5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환준 기자

## 오토바이 핑음 등 불법행위 23건 적발

핑음을 내며 거리를 질주하거나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운행한 오토바이 23대가 적발됐다.

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와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백운광장 교차로 인근에서 오토바이 불법행위 야간 합동 단속을 했다. 이날 단속에

서 핑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비롯해 불법으로 번호판 봉인을 개조한 오토바이 등 2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남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행정조치를 하는 대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김민빈 기자

## 광주시교육청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원아들이 부족한 병설유치원에 대해 단계적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병설 유치원 124곳을 68곳으로 통폐합한다. 시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1학급으로 운영하면서 놀이공간 등 시설이 갖춰진 병설 유치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1학급으로 운영되는 병설 유치원은 전체의 절반가량인 58곳에 이른다. 지역별 1학급 운영 병설 유치원 수는 인천 35곳, 대구 27곳, 대전 22곳, 울산 20곳, 부산 12곳이다. 이와 비교하더라도 광주가 월등히 많다.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중앙초·월곡초·동초·치평초 병설 유치원 4곳은 내

년까지 1년간 휴원에 들어가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의견을 들어 원아가 부족하고 시설이 갖춰진 병설 유치원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라 기자

## 일선 학교 코로나19 확진 ‘도미노’

### 집단감염 지속되자 자체 방역 강화

2학기 전면등교가 시작된 광주·전남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9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해 치료 받은 인원은 이날 오후 기준 총 100명이

다. 지역별로는 광주 36명(학생 33명·교직원 3명), 전남 64명(학생 63명·교직원 1명)이다.

방역당국은 순천 해룡면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1명이 확진되면서 원생 130명과 교사 13명 등 14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또 나주에서 모 고등학교 A양

이 확진돼 전교생 387명과 교직원 36명 등 450명에 대해 긴급 전수조사를 벌였다. A양의 동생 또한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해당 중학교 전교생 113명과 교직원 26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했다.

광주지역도 이달 들어 유치원 1곳, 초등학교 8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 등 총 15곳 학교에서 36명의 확진자 발생하

는 확산추이가 거세다. 이날도 13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온 중학교와 초등학교 등지에서 2명의 학생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다른 학교별 감염에 일선학교에서는 봉사인력을 확대하고 자체 방역을 강화해 감염 최소화해 집중하고 있다. 실제 여수의 한 고등학교는 급식실 외에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방역봉사 인력을 늘렸다. 또 교직원과 학생들은 수시로 자가진단을 하고있다.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내 방역 상황에 따른 문자를 발송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나라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40평(전용) <b>2억 3천</b>(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b>4억3천</b>(용2억6천)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b>9억</b> 매가<b>5억8천</b>(용 3억6천) 월수익 280만 (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b>010-6670-9800</b></p>	<p>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p> <p><b>총 1760평</b>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물류창고, 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b>010-6670-9800</b></p>	<p>◆ <b>월수익 750만</b></p> <p>◆ <b>연수익 9천만</b></p> <p>◆ <b>매매 13억</b> (용6억 5천)</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리정유, 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p> <p><b>010-6670-9800</b></p>	<p><b>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b></p> <p>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p> <p>•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광주</p> <p>광산구 신가동(아파트) ▶ 감정가 2억 -&gt; 최저가 1억4천 (9/8) 서구 치평동(아파트) ▶ 감정가 1억6천 -&gt;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gt;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 감정가 13억4천 -&gt; 최저가 9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9천 -&gt;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gt;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gt;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gt; 최저가 6억6천 (9/28)</p> <p>전남</p> <p>회순군 도곡면(근린시설) ▶ 감정가 10억 -&gt; 최저가 5억9천 (9/16) 회순군 백야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gt;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가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gt;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정) ▶ 감정가 68억 -&gt;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 2억7천 -&gt; 최저가 7천 (10/12)</p> <p>시외</p> <p>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 감정가 6억3천 -&gt; 최저가 2억1천 (9/14)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gt; 최저가 2억 2천 (9/27)</p> <p><b>062-382-5500</b></p>